

신안군, ‘관리 부담’ 경관수 사업 재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장기간 추진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진 경관수 사업을 재정비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관리 비용 투입과 수목 활용 한계, 반출 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관수 사업을 전면적인 정비로 통해 향후 관리 비용과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관수 사업은 지난 2009년 ‘경관수 양

묘 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약 140개 농가에 50만여주의 묘목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 경관수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매입사업을 추진해 약 130여 농가로부터 21만여주의 경관수를 매입해 왔다. 이 중 약 17만 주는 공원·가로수 등 공공사업과 정리 작업 등에 활용됐으나, 현재도 약 100여 농가의 4만여주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적 부담과 수목 활용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19년부터 111억 투입·매년 4억 이상 재정 부담 ‘미래 재정 부담 축소’ 방향 전환…주민 의견 반영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경관수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총 111억원이 투입됐으며, 현재도 매년 4억원 이상의 관리 예산이 지속해서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 공공사업 수목 수요의 한계로 적기 반출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농가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기존 수목을 운반·이식하는 비용이 신규 수목 구매·식재 비용과 차이가 크지 않아 활용성이 낮은 수목의 장기 보유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현재까지 투입된 비

용과 향후 발생할 관리·매입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달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용역을 통해 경관수 현황과 관리 실태, 정리 대상과 방법, 소요 비용, 수목 활용 가능성, 기존 수목 이식과 신규 식재에 따른 비용 차이, 장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가치와 경제성이 낮은 수목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

하고, 2027년 경관수 정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수목 정리를 넘어 미래 재정 부담을 줄여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며 “경제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과 농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불면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완도군-식품의약품안전처

자매결연 맺고 상생협력 맞춘

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수는 최근 군청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자매결연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완도 특산물 홍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 제공 등이다.

군은 이날 군청 로비에 전복 가공품과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유자차, 비파 와인, 해조류 기능성 화장품을 전시해 완도 대표 특산물을 홍보했다.

군은 11월 중 식약처에서 열리는 ‘지역 특산물 작거래 장터’에 참여해 전복 등 완도 특산물을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5년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제천시, 상주시, 순창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는 등 지역사회와 유대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김신 군수는 “식약처와 자매결연 체결은 청정한 완도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완도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식약처는 직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완도군의 우수한 자원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김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수는 최근 군청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청

영암,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첫 도입

농가 등급·매입 내역 등 온라인서 확인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올해 정 부양곡 매입부터 농가가 자신의 공공비축미 매입 등급과 내역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암형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을 처음 도입한다.

새 플랫폼이 적용되면 농가는 자신의 공공비축미 매입정보와 등급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에서는 농가별 매입정보와 검사 결과, 정산 내역 등을 플랫폼에서 연계 관리해 반복적인 자료 작성과 확인 업무를 줄일 수 있다.

현장 수매에서는 QR코드로 농가정보를 확인하고 검사 등급을 입력한 뒤 전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매입정보와 검사 결과, 정산 내역 등을 연계해 수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누락과 입력 오류도 줄인다.

군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적용했던 건조 비뿐만 아니라 산물벼, 친환경벼, 가루쌀, 피해벼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창고별 입·출고 물량과 재고도 플랫폼에서 관리해 남은 물량과 추가 입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플랫폼의 현장 적용을 앞두고 최근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에서 군과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

육을 진행했다. 이어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호면 월출산농협 생공창고 앞에서 모의수매를 실시한다. 군과 읍·면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관계자가 실제 수매 절차에 따라 QR코드 확인, 검사 등급 입력, 전자서명 등을 점검한다.

군은 모의수매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보완한 뒤 오는 12월까지 정부양곡 매입 업무에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승의 군수는 “농업인이 자신의 매입정보와 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번 플랫폼의 중요한 변화다”며 “수매 과정에서 농업인의 불편은 줄이고 현장 업무는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실제 수매 전에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현창국 기자 hck1342@

목포, 민선 9기 시장 공약 실행력 강화

실천계획 보고회…핵심 사업·예산확보 방안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9기 목포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인수위원회인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 공약안을 바탕으로 각 담당 부서가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실행 가능성을 점검·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사업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연차별 목표, 예산확보 방안, 추진상 애로사항, 타 기관·민간과의 협력 필요성 등 공약 이행 전반에 걸친 핵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부서별 재검

토와 내용 보완을 거쳐 공약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강성희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예산 검토와 실현 가능성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앞으로 보완·정리된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시민소통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해남, 노후 건물번호판 개별 재교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낡고 훼손돼 교체가 필요한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건물번호판 개별 재교부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훼손된 번호판을 정비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인 무상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 지역을 동시에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교체를 희망하는 군민들에게는 개별 신청을 통해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은 해남군청 민원토지와 지적재조사팀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7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제작이 완료된 건물번호판은 신청한 접수처를 재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선명한 건물번호판 관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사적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